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엄창욱^{*}·노광욱^{**}·박상우^{***}

요약

한국에서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은 지역경제활력과 잠재성장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소멸’의 가장 중요한 원인 역시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에 대한 연구성과도 상당하게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주로 경제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최근 변화하고 있는 청년층의 이동과 직업선택의 특성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원인으로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관계적 요인, 주체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청년의 유출과 유출청년의 지방 귀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청년의 지방 유출과 귀환의 요인으로 경제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관계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삶의 만족도가 청년의 정착과 귀환에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만족도는 경제적 요인보다 사회관계적 요인, 주체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 따르면, 지방의 청년층 노동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유출된 청년층 노동력을 지역으로 귀환시키는 정책은 경제적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혁신, 사회적 관계자본 형성 그리고 청년의 주체적 참여를 확장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한다는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용어: 인재 유출, 청년층 노동시장, 지역정착, 청년의 귀환

* 제1저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coum@knu.ac.kr)

** 공동저자, 지역개발연구원 원장(rokuk@hanmail.net)

*** 교신저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parksw@knu.ac.kr)

I. 문제제기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은 산업도시로의 인구집중 과정이었다. 그것이 80년대 이후부터는 국토의 불균형발전이 구조화 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으로 심화되었다. 그 결과 21세기의 한국은 ‘지방 소멸’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단순한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생산의 하락만이 아니라 지역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출산을 저하로 인한 ‘지방 활력의 소멸’로 구조화 되고 있고,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지방마다 청년유출의 문제를 넘어 청년 귀환의 문제를 제1의 화두로 고심하고 있다.

지금 지방의 청년층 노동시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는 한국경제의 ‘지속적 저성장’ 국면과 동시에 진행되는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해 수도권의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취업 입직구가 좁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서 수도권의 노동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한편 이것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밀어내는 실망노동자 혹은 실업노동자의 지방으로의 회귀현상이다. 둘째는 지방의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의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지역의 청년층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취업확률이 높은 서울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한편 지방에는 ‘괜찮지 않은 일자리’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일자리를 두고 수도권에서 회귀한 노동력과 지방 청년노동력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축이 겹치고 있는 지역사회는 ‘이중의 압박’을 받게 된다. 즉, 한편으로는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으로써 지역인적 자원의 고갈이 심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임금과 노동조건 악화라는 지역노동시장의 기형화가 심화됨으로써 지역사회는 격심한 활력상실의 늪에 빠지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 노동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는 전제조건 위에서 본 연구의 초점은 지방청년의 지역 정착을 확대하고 유출청년의 지방 회귀를 유도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는데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정착과 회귀의 요인을 경제적 요인 외에 다른 다양한 요인을 주목하였다. 자연환경의 요인, 사회관계망의 중요성 그리고 주체적 삶의 만족도와 같은 요인을 포착할 수 있는 항목을 설문지 항목에 추가한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에 와서 청년세대의 지역이동 원인이 확실히 변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이나 직업선택 결정요인으로 경제적 요인을 넘어 사회문화적 요인, 자연환경적 요인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들의 직업선택에 워라벨(Work-Life Balance)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논문에서는 청년의 지역정착 조건과 유출 청년의 귀환조건을 검토하고, 청년의 지역정착과 유출 청년의 지역귀환을 위한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모색 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지역청년의 유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경제결정론적인 분석방식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특징과 분석모형을 설명하고, 4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설명한다. 이 분석에서는 지역청년의 지역정착과 유출청년의 지역 귀환의 결정이 경제적 변수를 넘어 사회관계적 요인, 문화적 요인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으로 지역에서의 청년정착과 귀환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본 논문의 한계점도 명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인적자원이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지적은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Christopher, 2000). 동시에 인적자원의 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이므로 지역경제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Foulkes and Bruce, 2000).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적자원 이동이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첫째는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지방의 노동력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서울과 지방 혹은 지방 간의 노동시장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임정덕(1998), 남기곤(1998), 홍성우·이건철(1998), 박영구(2002), 최영아(2005), 박우식·엄창옥(2014)의 연구성과가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이동에 초점을 둔 연구성과로는 어수봉(1992), 전병휴(2000), 이병희·정재호(2005), 정인수(2004) 등을 들 수 있는데 산업구조의 변화 혹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가 지역 간 노동이동을 촉진한다고 하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특히 청년층 노동이동에 대한 연구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류장수(2005), 김안국(2006), 김준영(2006), 박우식·남병탁·엄창옥(2010), 이상호(2010)의 연구들은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이 지방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혹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지방에서 서울 혹은 수도권으로의 노동력 이동이 지역인재의 유출(Brain Drain)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불균형발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지역의 인재유출과 지역불균형발전은 권상철의 연구(2003)에서 확인할 수 있고, 부산지역의 청년층 인재유출의 결정요인분석으로는 김기승·정민수(2013)의 연구, 광주지역의 대졸인력 유출 요인분석으로는 홍성우(2016)의 연구,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인재유출과 지역불균형발전은 이효수·남병탁(2008)의 연구, 대구경북 인재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은 박우식·박상우·엄창옥(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2000년대가 되어도 지방의 인재유출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가지는 공통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의 인재유출이 지역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기본시각 위에서 이러한 유출의 결정요인들을 지방과 수도권간의 노동시장특성, 예컨대 실질임금 격차, 미래임금 수준, 고용 가능성, 기업규모 그리고 성별 및 학력별 차별 등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재유출을 지방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일 방향 이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연구들은 공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업부문과 농업부문간의 임금격차·고용 확률에 따른 노동력 이동을 설명하고 있는 Todaro-Harris(1970) 전통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과 그에 따른 도시화 과정에 의한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서울 및 수도권으로 노동력 이동이 21세기에 들어와도 지속되고 있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넘어서 노동력 이동의 ‘양방향 이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경험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면서 서울인구의 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에서도 1976년과 1979년의 1차 감소, 1994년의 2차 감소, 2011년의 3차 감소를 경험한 것과 유사하다(樋口美雄 외, 2016년). 동시에 노동력 이동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도 분석의 범주에 두고자 한다. 지방의 인재유출 요인을 경제적 요인에 주목한다면 지방 경제력이 수도권 경제력을 추월하지 않는 한 노동력 이동방향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력의 양방향 이동의 관점에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관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서 지역청년의 귀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자료와 분석

1. 기본관점과 자료

지금까지 청년층의 유출 및 유입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취업 가능성, 임금격차, 기업규모와 같은 경제적 요인에서 찾아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변수들을 수도권의 그것과 비교하면 지방의 노동시장은 열등하므로 지방의 청년인재의 유출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런 관점 안에서는 별다른 해법이 없을 것이다. 지방에서는 스스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는 대기업 유치에 노력했지만 이미 인재가 떠난 곳에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매우 성공적으로 대규모 국가공단을 유치한다 해도 그 공단에 채워지는 것은 대기업을 단순생산직종이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중소기업 일자리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이전의 연구와 비교하여 두 가지의 다른 관점을 가진다. 청년층의 유출과 귀환을 분석할 때, 이들을 밀어내는 지역의 ‘원심력’이라는 관점과 이들을 끌어들이는 지역의 ‘구심력’이라는 관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어떤 지역의 청년층 유출 혹은 유출자의 귀환은 청년을 그 지역에서 밀어내는 원심력과 그 지역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 관점은 오늘날의 청년 집단이 과거와는 다른 고유의 성향을 가진다는 점과 연관되어 있다. 최근에 와서 청년층의 성향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래된 저출산 경향이 낳은 결과일지도 모른다. 첫째, 지금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청년은 딸이든 아들이든 대부분이 하나뿐인 자식일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뿐인 자식을 먼 곳으로 보내려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동시에 하나뿐인 아들·딸로서의 청년도 여러 가지 불안요인을 안고 경쟁이 격심한 낯설고 물선 곳에서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청년층의 직장 결정요인도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직장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금 수준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청년은 높은 노동강도를 기반으로 하는 고 임금보다는 여유 있는 삶을 더 중요시한다. 그 여유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고 자신만의 삶을 가지려하는 경향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청년은 자신과의 관계망을 중요시 하며 직장이 이런 관계망을 폭력적으로 해체하면서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한다. 그러므로 평생직장이라는 개념, 즉 자신의 삶을 한 직장에 묶어 두고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위계적 질서를 전 생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직장관행을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청년층의 직장은 높은 휘발성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휘발성 높은 직장에서 받는 임금으로는 집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의 생계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결혼률을 낮추거나 합계출산률을 낮추게 한다. 이런 여러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청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한다. 부모의 가업을 잇거나 부모가

형성해 놓은 사회적 관계자본 위에서 적정규모의 창업을 하든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인구의 유출입을 경제적 요인으로 수렴시키려는 경제환원주의적 관점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임금수준, 기업규모, 차별과 같은 노동시장의 특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큰 격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지역청년들에게는 수도권으로의 원심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의 구심력이 작동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수도권의 장기적 경기 침체가 수도권으로 불러들이는 구심력을 약화시키고 있고, 동시에 위에서 지적한 청년문화의 새로운 경향들이 지방에서의 구심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보수적 기업문화는 지방청년을 서울로 밀어내는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고, 서울의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가 지방청년을 서울로 끌어들이는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 반면에 자신의 익숙한 친구관계나 부모의 보호망과 같은 사회적 관계자본이 지역 청년에 대한 지역 구심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청년의 의사결정에서 간과해서 안 될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 하는 것은 청년이 향유하는 문화적 요소이다. 청년문화, 디지털 정보, 자연친화적 환경, 직장환경, 삶과 일의 밸런스 등으로 표현되는 삶의 만족도와 같은 문화적 요소들이 청년들의 이동과 직장선택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화적 요인이 지방이 만들어내는 구심력의 핵심요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최근에 와서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2016-7년 ‘촛불’ 로 대변되는 주체적 참여가 그것이다. 만일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청년층은 숨죽여 지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야기가 의미를 갖는 열린 공간으로 이동해버리는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촛불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경험한 지역청년층이 지역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지역사회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것이 오히려 지역의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현상을 「유목적 성향」 이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만, 해당지역의 이런 특성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관점에서 말하면 청년의 유출과 귀환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영역이다. 그러므로 청년 문화와 청년의 주체적 참여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적 특성은 지역 청년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청년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청년의 목소리를 지역사회가 듣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청년의 주체적 참여와 열린 문화의 존재 여부는 그 지역의 청년을 밀어내는 원심력이 될 수도 있고, 비록 경제적 여건이 부족해도 그 지역 청년을 끌어들이고 정착하게 하는 구심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표 1> 구심력과 원심력의 요소

경제적 조건	문화적 조건	관계적 조건	주체적 조건
월 가구소득 월 지출 적정연봉 수준 부모의 경제적 수준 부채의 여부 고용상의 신분	삶의 만족도 여가의 만족도 직장에서의 만족도 만족스런 문화 활동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방향 정보 서비스 일과 삶의 밸런스	대구 거주 기간 초중고등학교의 대구 졸업 부모와의 동거 여부 부모의 대구 거주 여부 친구 관계 인턴 경험 근무 연수	창업 의지 여부 지역청년정책 참여 의지 청년센터 활용 의사 청년관련 지원 프로그램 요구 대구시 청년 정책에의 관심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점에서 지역이 가지는 구심력과 원심력을 ①경제적 조건, ②문화적 조건, ③관

계적 조건, ④주체적 조건으로 대별하고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특히 대구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질문한 문항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실태분석 자료는 대구광역시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16년 대구시 청년실태조사」¹⁾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대구거주 청년과 서울거주 대구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본 설문지는 실태분석을 위해 설계된 것이지만,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위해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조사대상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의 대구시 거주자)과 서울로 출향한 대구 청년(만 19세~39세의 서울시 거주 직장인)이다. 대구지역거주 청년에게는 정착의 가능성을, 서울출향 청년에게는 귀환의 가능성을 각각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5월20일부터 6월22일 32일간 실시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지역청년 900명, 출향청년 100명이며, 면접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였다. 표본의 일반특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19세에서 39세까지 대상 청년을 5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표본을 골고루 분포하게 하였다. 청년의 경제·사회적 지위에 따라 정착과 유출의 태도가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대학생, 취업준비생(실업자 포함), 전업주부, 직장인, 자영업자로 구분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표 2> 표본의 구성

구 분		대구지역 거주 청년	서울 출향 청년
전 체		900	100
연령분포	19~24세	236	14
	25~29세	227	45
	30~34세	214	29
	35~39세	223	12
성 별	남	452	45
	여	448	55
직 업	학 생	214	-
	취준생	140	-
	전업주부	81	-
	직장인	404	100
	자영업자	61	-
결혼여부	미 혼	619	82
	기 혼	281	18

2. 분석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에게는 위에서 제시한 ①경제적 조건, ②문화적 조건, ③관계적 조건, ④주체적(참여적) 조건에 따라 지역청년 스스로가 지역에 정착할 것인가, 아니면 타지역으로 출향할 것인가를 연관지음으로써 지역청년의 정착조건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정착(1)과 출향(0)을 독립변수로 하고, 구심력과 원심력을 결정하는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1) 「2016년 대구청년실태조사결과」,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2016.12. 이 보고서는 「2020 청년희망 대구」의 별책 부록이며, 보고서에 설문지가 실려 있다.

동시에 서울로 출향한 청년에게는 지역 귀환(1)과 서울 정주(0)를 독립변수로 하고, 위에서 제시한 원심력과 구심력의 변수를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귀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요인분석을 통해 대상 청년을 새로운 잠재적 집단으로 재분류하고, 이 집단들이 정착과 귀환의 결정요인에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지역청년의 정착과 귀환의 결정요인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한다.

IV. 지역청년의 정착과 귀환의 결정요인

1. 대구지역 청년(전체)의 정착-유출 가능성에 대한 분석

로지스틱 분석결과인 다음 <표 3>은 어떤 요인들이 지역청년들로 하여금 지역에 머물 것인가(+값) 수도권으로 나갈 것인가(-값)를 나타내고 있다²⁾. 앞에서 제시한 <표 1>의 많은 변수들 중에 대부분이 통계학적으로 청년의 지역정착과 유출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제거되었다. 지금부터는 통계분석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은 설명변수를 중심으로 지역청년의 정착과 유출의 가능성을 설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우리가 청년들에게 물을 수 있는 일반적 특성인 ‘나이’, ‘학력’, ‘출생지’ 등은 청년의 지역 정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변수선택 과정에서 이들 설명변수들이 자동으로 제거되어 <표 3>에는 표현하지 않았다. 다만 ‘결혼여부’ 문항에 있어서 오즈값(Exp(B))이 3.104인데, 이것이 기혼인 사람이 미혼인 사람에 비해 지역 정착의 가능성을 3.104배로 증가한다는 통계적 의미를 가진다. 청년의 결혼 여부가 지역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최근 부산에서나 광주, 그리고 대구에서도 청년들 스스로가 결혼대상자 찾아주기 이벤트를 유행시키고 있는데 이런 행사가 지역 청년 정착에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목 할 만 한 것은 경제적 조건에 해당되는 여러 문항(소득, 부모의 경제적 수준, 부채 등)은 대부분 제거되고 ‘직업’만 남았다는 점이다. ‘직업’은 정착 여부에 양(+)의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직장이 안정적이면 정착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직장인·자영업·주부 등은 취업준비생에 비해 정착 가능성이 높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그러나 학생의 경우, 정착 가능성이 취업준비생에 비해 -0.430배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학생의 유출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삶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교육, 자녀양육, 소득, 주거, 직업 등의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청년의 정착과 유출에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변수로는 ‘직업’ 변수만이 설명력을 가지며, ‘직업’의 문제가 지역청년 정착의 가능성을 -0.521배로 감소시킨다. 말하자면 지역청년들은 직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2) 이 분석은 대구지역 청년의 정착(1)과 유출(0)을 독립변수로 하고, 경제적 조건과 문화적 조건, 관계적 조건, 주체적 조건의 문항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분석결과이다. <표 3>은 회귀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의 회귀계수(B), 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 Wald(Wald 통계량), 통계량의 유의확률과 오즈 비(Exp(B))를 제시하고 있고, 변수선택법으로는 후진제거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남은 변수만을 표에 실었다. 여기서 오즈 비(Exp(B))는 해당하는 공변량(설명변수)이 한 단위 증가할 때의 종속변수에 미치는 확률값을 말한다.

문화적 조건과 관련되는 문항도 일부는 제거되고 말았지만, ‘삶의 만족도’, ‘여가 만족도’ 등의 설명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정착 가능성이 1.203배로 증가한다. 청년의 지역정착에 있어서 ‘삶의 만족’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청년들의 삶의 만족감을 더 하는 여가활동 중 ‘사회활동’(봉사, 종교, 계모임, 동호회 등)에 적극적인 사람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오즈 값 2.605배)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지역청년의 삶의 만족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청년의 지역정착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여가생활의 만족도 역시 청년의 지역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다만 여가활성화 방향 중에 ‘전문인력 양성’, ‘동호회 육성’에 관심을 보이는 청년의 지역정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대구지역 청년(전체)의 정착 여부(정착(1)·유출(0))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모형

독립변수	통계값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상수항		-1.948	1.943	1.005	0.316	0.143
결혼여부(ref:미혼)		1.133	0.358	10.004	0.002**	3.104
직업(ref:취준생)				24.150	0.000***	
-직장인		0.224	0.288	0.608	0.436	1.251
-자영업		1.277	0.686	3.463	0.063	3.588
-전업주부		0.341	0.532	0.410	0.522	1.406
-학생		-0.845	0.287	8.674	0.003**	0.430
출생지(ref:제주)				9.034	0.250	
-대구		1.908	1.779	1.151	0.283	6.742
-경북		2.216	1.784	1.541	0.214	9.166
-수도권		1.957	1.831	1.141	0.285	7.076
-경남		2.400	1.809	1.759	0.185	11.021
-충청		-5.89	2.108	0.078	0.780	.555
-전라		1.741	1.927	0.817	0.366	5.704
-강원		22.716	14224.131	0.000	0.999	b
현재 삶의만족도		0.185	0.057	10.680	0.001**	1.203
삶의 어려움						
-직업		-0.652	0.225	8.402	0.004**	0.521
만족스러운 여가						
-사회(봉사, 종교, 계 등)		0.958	0.447	4.588	0.032*	2.605
여가생활만족도		0.207	0.106	3.810	0.051	1.230
여가 활성화방향						
-전문 인력		0.706	0.241	8.570	0.003**	2.025
-동호회		0.504	0.227	4.903	0.027*	1.655
부모와 동거		-1.011	0.265	14.558	0.000***	0.364
창업 의지		-0.247	0.112	4.866	0.027*	0.781
청년 관심프로그램						
-청년 정책의제 발굴		0.811	0.226	12.920	0.000***	2.251

관계적 조건의 변수는 ‘부모와의 동거여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거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지역 청년이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것이 지역 정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청년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동거는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주체적 조건을 묻는 여러 문항 중에 청년의 지역정착과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설명변수는 ‘창업의지’, ‘청년정책에 대한 참여’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창업 의지’ 를 가지는 청년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0.781배로 감소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구지역의 창업환경이 열악하여, 지역청년이 창업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대구에서는 창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청년의 정착을 위해 청년의 창업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분석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대구청년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청년정책 의제 발굴’ 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의 지역 정착의 가능성이 2.251배로 크게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년센터와 같은 창구를 통해 청년이 지역문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지역정착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대구지역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지역 정착과 유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청년 세대는 학생, 취업준비생(실업자 포함), 직장인 등의 지위에 따라 자신이 처한 입장이 현저하게 다를 것이며, 그 상황에 따라 지역의 정착과 유출이 매우 유동적인 것이므로 청년의 지위에 따른 각각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표 4>는 대구지역 청년의 <학생·직장인·취준생>별로 정착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앞에서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종속변수를 정착(1)과 유출(0)로 설정하고 기존의 설명변수에 대하여 모델 I 은 학생, 모델 II는 직장인, 모델 III은 취준생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청년 학생의 정착조건

<표 4>의 제1열은 청년 학생의 정착 조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년 학생 분석에서 특징적인 점은 대부분의 경제적 조건을 나타내는 설명변수는 통계분석 과정에서 제거되고 문화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의 문항들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여가 만족도의 정착 오즈비(Exp(B))가 1.663으로 계산되었는데, 이것은 여가 만족이 1단위 증가할 때 청년 학생의 정착 가능성이 1.663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역에서의 여가활동이 지역 정착에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를 잘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 조사에서 여가의 종류를 6가지로 분류하였는데, 문화예술의 관람과 참여, 스포츠의 관람과 참여, 관광, 취미오락, 휴식 그리고 사회(봉사활동, 종교, 클럽, 동호회, 동창회 등의 계모임) 등이다. 이 모델 I 통계 분석에서는 이들의 여가는 모두 기각되고 사회적 관계망과 관계가 깊은 ‘사회’ 활동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오즈비도 4.6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사회관계망을 통한 여가활동이 1단위 증가함에 따라 청년 학생의 지역정착 가능성이 4.678배 증가한다는 것이다. 여가활성화 방향 중 ‘전문인력 양성’ · ‘질 좋은 프로그램 개발’ · ‘제도 개선’ 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선’ 에 관심을 보인 청년 학생의 정착 가능성이 3.029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의 주체적 조건에 관한 항목 중에 ‘창업’, ‘청년센터’, ‘청년정책’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생 청년층의 지역정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업’ 이라는 설명변수 그 자체는 청년학생의 지역정착과 통계적 의미는 없으나, 창업 애로사항 중에 ‘창업에 대한 지식 부족’ 을 강하게 느끼는 청

년 학생일수록 지역정착의 오즈비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어 창업의 어려움을 느낄수록 지역 유출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창업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학생일수록 지역정착 오즈비가 4.30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을 통해 지역에서 안정적 일자리를 기대하는 청년 학생에게 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위해 중요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느끼는 청년 학생일수록 지역정착의 가능성은 1.530배 증가한다. 따라서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활성화 정책이 지역정착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의 청년 학생은 ‘청년정책 참여’ 혹은 ‘청년센터 활용’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여서 취업준비생이나 직장인 청년집단과는 달리 통계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 중에 ‘청년축제 및 청년주간 행사’,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을 보인 청년이 각각 -0.474배, -0.372배로 오즈비가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관련 행사에 대해서 청년 학생의 지역 정착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짐작컨대 이러한 행사가 청년 학생들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청년 학생의 지역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문화적 만족도 중에서도 여가 만족도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청년의 주체적 참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의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 청년 직장인의 정착조건

<표 4>의 제2열은 청년 직장인의 정착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델Ⅱ는 대구지역 청년 직장인의 정착여부(정착과 유출)가 설명변수에 의해 54.0%($R^2=0.54$) 설명되고 있다.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계분석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일반적 특성변수 중에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변수는 ‘기혼자’ 청년의 반응이다.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정착의 가능성이 6.792배 증가한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정착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졸 직장인 청년의 경우가 대학원졸 직장인에 비해 정착의 오즈비가 -0.06배로 감소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경제적 조건의 변수들은 대부분 제거되고 ‘직장결정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변수로 남아 있다. 직장을 결정하는데 ‘기업규모’와 ‘성장가능성’, ‘직장분위기’, ‘일과 가정의 병행’ 모두가 마이너스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 ‘성장가능성’, ‘직장분위기’, ‘일과 가정의 병행’을 고려하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지역의 직장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장 분위기’와 ‘일과 가정의 병행’에 관한 계수값(B)도 높으며 유의수준(P)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구지역의 ‘기업의 규모’, ‘성장가능성’, ‘직장분위기’, ‘일과 가정의 병행’의 조건이 청년의 지역정착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직장인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대구지역의 기업문화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직장인 청년에서는 문화적 조건에 관한 설명변수가 제거되지 않고 많이 남아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삶의 전반적 만족도’에서는 만족도가 1 증가할 때 지역 정착의 가능성이 2.234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수준도 매우 높다. 직장인 청년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도는 결혼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우 중요한 지역정착 결정요인이다. 직장인 청년에게 있어서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

는 설명변수로는 ‘교육’을 꼽았다. 그러므로 계수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1단위 높아질수록 유출의 가능성이 -0.151배로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만족도’ 설명변수는 제거되었지만, ‘만족스런 여가활동’에 대한 응답에서 모든 설명변수들의 계수값이 음수(-)로 나타났다. ‘사회적 활동’, ‘휴식’, ‘취미오락’, ‘관광’,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지역정착의 오즈비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직장인 청년에게 있어서 대구지역의 여가활동 전반이 불만족스러우며, 이 불만족이 지역 유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문화예술’의 불만족이 지역 정착의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여가문화를 활성화하는 방향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제도 개선’ 1단위가 일어날 때 직장인 청년의 지역 정착 가능성은 3.739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문화에 관련된 제도개선이 청년의 지역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다.

다음으로 주제적 조건의 변수들 중에 ‘청년정책 참여 의향’, ‘청년센터 활용 의향’, ‘청년의 관심 프로그램’, ‘청년정책 주력분야’, ‘대구시 청년정책’의 설명변수들이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면서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다. ‘청년정책 참여 의향’은 음(-)의 계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직장인 청년이 대구지역의 청년정책에 관심을 보일수록 오히려 청년의 지역 유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직장인 청년이 대구지역 청년정책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는 ‘청년센터를 활용할 의지’를 보인 직장인 청년은 지역 정착 가능성을 2.177배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장인 청년에게 있어서 대구청년센터가 순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대구청년센터의 역할이 주목된다. 대구청년센터의 청년관심프로그램 중에 ‘청년정책 의제 발굴 프로그램’에 가장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인 청년이 대구청년센터의 청년정책 의제 발굴 프로그램에 1단위 참여할수록 지역정착 가능성이 9.963배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청년의 주제적 지역 참여가 지역 정착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정책에 주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청년정책 의견 제시’, ‘혁신·도전활동 지원’에 대한 정착 오즈비(각각 -0.132, -0.360)가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이것은 직장인 청년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기존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의 청년정책 중 주력해야 할 부분에 관해서는 ‘진로취업 교육’에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진로취업 교육’ 1단위 증가가 직장인 청년의 지역 정착 가능성을 3.397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로 볼 때 직장인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결혼,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의 문화적 여가의 중요성 및 청년의 주제적 발언과 참여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취업준비생 청년의 정착조건

<표 4>의 제3열은 취업준비생 청년의 정착조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취업준비생의 각 설명변수는 전진 선택법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어 버렸다.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설명변수는 주제적 조건의 변수 중 ‘청년센터활용 의사’, ‘청년정책 주력 분야’만이 남았다. 취업준비생 청년의 ‘청년센터 활용 의사’가 1점 오를 때마다 지역 정착의 가능성이 2.381배 증가한다. 대구청년센터와 같은 청년의 참여가 지역정착에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면에 청년정책 주력분야에 대해서 ‘청년정책 의견 제시’가 음(-)의 계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취업준비생에게 있어서 청년정책 의견 제시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등의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대구지역 청년의 <학생·직장인·취업준비생>별 로지스틱 회귀분석

설명변수	Model I (대구청년:학생)			Model II (대구청년:직장인)			Model III (대구청년:취준생)		
	B	P	Exp(B)	B	P	Exp(B)	B	P	Exp(B)
상수항	-1.222	0.238	0.295	24.807	0.999	a	-4.353	0.029*	0.013
결혼여부(ref:미혼)				1.916	0.004**	6.792			
직업(ref:취준생) -직장인 -자영업 -전업주부 -학생									
학력(ref:대학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1.562 -1.983 -2.816	0.012* 0.179 0.006**	0.210 0.138 0.060			
출생지									
부모와의 동거	-0.904	0.018*	0.405	-2.441	0.000***	0.087			
삶의 만족도				0.804	0.000***	2.234			
삶의 어려움 -직업 -교육				-1.888	0.001**	0.151			
직장결정 요인 -기업규모 -성장가능성 -직장분위기 -일가정병행				-1.468 -1.170 -1.684 -1.549	0.018* 0.017* 0.001** 0.003**	0.230 0.310 0.186 0.212			
대구기업취업의사							1.751	0.000***	5.762
필요주거지원 -공공주택 -주거비							-2.443 -2.999	0.067 0.022*	0.087 0.050
여가만족도	0.509	0.005**	1.663						
만족스런여가: -사회 -휴식 -취미,오락 -관광 -문화예술	1.543	0.033**	4.678	-2.605 -2.265 -2.618 -3.182	0.001** 0.008** 0.001** 0.000***	0.074 0.104 0.073 0.042			
여가활성화방향 -전문인력 -동호회 -제도개선	1.108	0.015*	3.029	1.319	0.017*	3.739			
창업의지									
창업애로 -지식부족 -안정적일자리	-1.435 1.459	0.026* 0.015*	0.238 4.301						
창업교육필요	0.425	0.030*	1.530						
청년정책참여의향				-0.519	0.038*	0.595			
청년센터활용				0.778	0.004**	2.177	0.868	0.024*	2.381
청년관심PG -청년정책의제발굴 -청년행사 -청년네트워크	-0.747 -0.988	0.044** 0.022**	0.474 0.372	2.299	0.000***	9.963			
청년정책주력 -정책의견제시 -혁신활동지원	2.520	0.018*	12.434	-2.022 -1.021	0.004** 0.058	0.132 0.360	-1.764	0.030*	0.171
대구시청년정책 -진로취업교육	-0.940	0.010*	0.391	1.223	0.005**	3.397			

Model I : =5.917, 자유도=12, 유의확률=0.657, Nagelkerke R²=0.336

Model II : =2.298, 자유도=30, 유의확률=0.970, Nagelkerke R²=0.540

Model III : =8.722, 자유도=6, 유의확률=0.388, Nagelkerke R²=0.514

*:p<0.05, **:p<0.01, ***:p<0.001

a:complete separation 경우임, 빈칸은 후진제거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설명변수가 제거된 결과임

경제적 조건 중에 유일하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설명변수는 ‘대구지역 취업의사’이다. 취준생(실업자 포함)이 대구지역에서 취업할 의사가 1단위 증가하면 지역 정착의 가능성이 5.76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시 취업은 취준생에게 있어서 지역정착의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취준생 청년이 지역기업에 취업되면 지역정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준생 청년에게 있어서 대구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희망했다. 그러나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취준생 청년에게 지금 당장 주거 지원이긴 요하지만 대구시의 청년 주거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서울로 출향한 청년의 대구로의 귀환 가능성

<표 5>는 서울로 출향하여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대구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대구로의 귀향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³⁾ 결과적으로 경제적 조건에 관한 변수(근무기간, 연봉수준)와 관계적 조건에 관한 변수(부모의 대구 거주, 부모의 경제적 수준) 몇몇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어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먼저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일반특성변수인 ‘연령’은 통계적 유의성은 없으나, 20세 후반은 대구 귀환에 음(-)의 가능성을 가지지만, 20세 전반과 30세 전반은 대구 귀환에 양(+)의 가능성을 가진다. 이것은 대학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거나 갓 졸업하고 취업 초년생의 청년은 대구로의 귀향보다는 서울 정주의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대학 초년생이거나 졸업 후 취업을 한 청년의 경우는 ‘연령’만으로 볼 때 대구로의 귀향 가능성이 존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대학 혹은 직장에서 정착의 어려움에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역시 ‘여성’에 비해 양(+)의 가능성을 가지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학력’ 또한 대구 귀환에 음(-)의 상관성을 가지는데, 대학원졸 청년에 비해 고졸, 전문대졸, 대졸 청년은 서울 정주의 의향이 강하다. 서울정주 의향은 학력이 높아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가 귀환의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서울에서의 결혼은 대구 귀환의 의지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구 정주자의 경향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서울에 온 시기’가 귀환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해 보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결혼을 위해 출향한 경우와 비교해서 학업을 위해 출향했을 때의 귀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분석결과를 귀향 가능성의 관점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갓 취업하였거나 취업에 몰두하는 연령대는 귀향에 대한 생각이 없으나 재학시절 혹은 취직 후에는 귀향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한다는 점,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귀향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 그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젊은 시절에 출향할수록 귀향의지가 더 강하다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이런 경향은 본 분석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문화적 조건 중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서는 ‘삶의 만족도’이다. 우선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귀환의 가능성은 -0.372배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

3) 이 분석은 종속변수를 대구로의 귀환(1)과 서울 정착(0)으로 설정하고 실행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후진제거법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설명변수는 제거되었다. 통계적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선택된 설명변수로 대구 귀환(1)과 서울 정착(0)을 설명하는 설명력은 56.2%(R²=0.562)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울에서의 ‘삶의 어려움’ 이 1단위 증가할수록 귀환의 가능성은 -0.119배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생활에서의 어려움이 귀환을 결정하는데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가려는 출향자의 심리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표 5> 서울로 출향한 대구청년(직장인)의 대구로의 귀환에 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독립변수	통계값	B	S.E	Wald	유의확률	Exp(B)
상수항		13.555	5.242	6.687	0.010*	770435.47
연령(ref:34-39세)				3.996	0.262	
19~24세		0.714	2.134	0.112	0.738	2.043
24~29세		-0.703	1.863	0.142	0.706	0.495
30~34세		0.922	1.721	0.287	0.592	2.514
성별(ref: 여성)		1.519	0.882	2.970	0.085	4.570
학력(ref:대학원졸)				0.363	0.948	
고졸		-1.197	2.207	0.294	0.588	0.302
전문대졸		-0.881	1.944	0.205	0.650	0.414
대졸		-0.841	1.486	0.320	0.572	0.431
결혼여부(ref:미혼)		-0.498	1.265	0.155	0.694	0.608
서울로 온 시기(ref:결혼시)				2.408	0.661	
-대학진학시		2.670	1.970	1.836	0.175	14.439
-대학원진학시		1.442	1.901	0.575	0.448	4.227
-취업시		1.648	1.994	0.683	0.408	5.197
-취업준비시		1.434	1.694	0.716	0.398	4.194
부모 대구 거주여부		0.195	0.877	0.050	0.824	1.216
서울 출향 만족 여부		1.840	0.874	4.436	0.035*	6.299
서울 계속 거주여부		-2.299	0.811	8.042	0.005**	0.100
삶의 만족 정도		-0.988	0.340	8.463	0.004**	0.372
삶의 어려움		-2.130	0.888	5.749	0.016*	0.119
부모의 경제적 수준		0.442	0.373	1.404	0.236	1.556
서울직장근무기간(ref:10년이상)				7.453	0.114	
-1년미만		-0.510	1.703	0.090	0.764	0.600
-1~3년미만		-2.071	1.975	1.099	0.294	0.126
-3~5년미만		0.580	2.095	0.077	0.782	1.785
-5년~10년미만		-3.985	2.273	3.074	0.080*	0.019
연봉(ref:4500만원이상)				2.853	0.723	
-1500미만		-0.008	1.693	0.000	0.996	0.992
-1500~2000		-2.003	1.448	1.913	0.167	0.135
-2000~2800		-0.762	1.235	0.380	0.537	0.467
-2800~3500		-1.116	1.187	0.883	0.347	0.328
-3500~4500		-0.511	1.119	0.209	0.648	0.600
현직장 만족		-0.352	0.421	0.700	0.403	0.703

카이제곱(χ^2)=53.723, 자유도=28, 유의확률=0.002, Nagelkerke R^2 =0.5620
 *:p<0.05, **:p<0.01, ***:p<0.001
 N:100

이것과 연관해서 흥미로운 점은 ‘서울 출향을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 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출향 만족이 1점 증가할 때 귀환의 가능성도 6.299배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서울 오기를 잘 했다’ 고 생각하는 청년은 서울이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고, 또한 서울에서 성공적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청년일수록 고향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부담’ 이 낮아진다

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의환향’의 의식이 있다는 점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으로도 계속 서울에 거주할 의향’이 있는 청년의 경우, 서울거주 의향이 1점 증가할수록 귀향의 가능성은 -0.100배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정착의향이 강할수록 귀향의사가 낮아진다는 당연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조건에 해당되는 설명변수 중에 제거되지 않고 남은 변수로는 ‘서울직장 근무기간’이다.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근무자는 귀환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통계적 유의성도 낮았다. 다만 5년~10년의 직장인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수준에서 귀환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해서 어려움이 가장 큰 기간으로 보여지는 3년~5년 차 직장인은 귀환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출향 직장인 청년은 취업 초기에 직장에서 적응하고 경쟁하는 시기에는 귀향 가능성이 낮은 반면, 10여년이 지난 후에는 귀향의 경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연봉’과 같은 경제적 조건도 귀환을 설명하는 결정적 변수가 아니었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다.

연봉 4500만 원 이상의 고연봉자에 비해 낮은 구간의 연봉자뿐만 아니라 높은 구간의 연봉자도 모두 귀환의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액 연봉자에 비해 저액 연봉자가 서울 생활의 고단함으로 인해 귀향의 의지가 증가하리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수준에서 귀환 의사와는 음(-)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액 연봉자에 비해 저액 연봉자는 서울 정착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다.

관계적 조건에 관해서는 두 개의 변수(‘부모의 대구 거주 여부’, ‘부모의 경제적 수준’)가 선택되었다. ‘부모의 대구 거주 여부’는 귀환과 양(+)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낮았고, 부모의 경제적 수준 역시 귀환과 양(+)의 가능성을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 통계적 유의성이 낮다는 전제 위에서 서울 출향자는 부모가 고향에 계시는 것이, 그리고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귀향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에서 서울출향 대구청년의 대구 귀환은 경제적 조건이나 관계적 조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서울에서의 삶의 질 그리고 출향의 만족도가 귀환 의사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삶의 만족과 정착·귀환의 가능성

앞 절의 분석에서 확인된 것이지만,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이 그 지역에 정착할 가능성(즉 지역 구심력)이 높았고, 만족도가 낮을수록 그 지역에서 유출될 가능성(즉 지역 원심력)이 높았다. 본 절에서는 삶의 만족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구 청년에 대해서 ‘총체적인 삶의 만족도’, ‘여가 만족도’, ‘관계 만족도’를 구분하여 이러한 삶의 만족도가 청년 정착과 귀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각의 만족도에 유사한 반응을 하는 청년을 같은 집단으로 묶고, 이 집단이 지역의 정착과 귀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요인분석을 통해서 대구지역 청년을 특성별로 3개의 잠재적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대구지역 청년 집단이 지역에서의 그리고 서울에서의 만족도(종속변수)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대구 지역 청년의 정주 및 귀환의 조건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대구거주 청년의 만족도로 본 지역정착 가능성

요인분석은 많은 수의 변수들로 구성된 자료를 몇 개의 잠재적 요인에 의해 그 특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분석이다. <표 6>에서 보듯이 요인분석을 통해 3개의 요인으로 전체 변이의 52.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표본을 3개의 잠재적 군집으로 묶고자 한다.

<표 7>의 ‘군집의 특성’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3개의 군집에 잠재적 특성을 부여한 것이다. 회전된 요인행렬에 의하면 제1요인 군집은 ‘참여적 성격이 강한 청년집단’ 이고, 제2요인 군집은 ‘대구 정주의사가 있는 청년집단’이며, 제3요인 군집은 ‘출향의사가 비교적 강한 청년집단’으로 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각 군집(3개의 집단)에 속하는 대구지역 청년이 대구 지역에서 느끼는 지역청년의 ‘삶의 만족도’, ‘여가 만족도’, ‘관계 만족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 는가를 분석한 결과(다중회귀분석)를 다음 <표 8>로 정리하였다.

<표 6> 설명된 총분산

요인	초기 고유값		
	전체	분산	누적 (%)
1	1.844	23.051	23.051
2	1.313	16.408	39.459
3	1.075	13.442	52.901
4	0.895	11.192	64.094
5	0.876	10.951	75.045
6	0.828	10.352	85.397
7	0.768	9.601	94.998
8	0.400	5.002	100.000

주: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표 7> 회전된 요인행렬^a

잠재적 요인	요인		
	1	2	3
군집의 특성	참여적 청년 군집	대구정주의사청년 군집	출향의사 청년 군집
대구거주 기간(A2)	0.007	0.327	0.002
앞으로 대구에 정착의사(A4.1)	-0.003	0.544	-0.067
부채의 정도(C1_6_1)	-0.104	0.298	0.197
부모의 경제적 수준(C1_7)	0.000	-0.028	-0.341
창업 의향 여부(C3_1)	0.215	-0.057	0.269
교통정책에 관심(예:버스시간 운행연장)(C7_2)	0.243	-0.278	-0.012
청년정책 형성에 참여 의사(C11_1)	0.744	-0.079	0.037

주: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5회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모델 I 은 <삶의 만족도>에 관한 분석이다. ‘참여적 의향’ 을 가진 청년집단(제1요인 군집)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증가(b=0.194)하며, 대구지역 ‘정착의지’ 를 가진 청년집단(제2요인 군집)의 삶의 만족도는 더 큰 비율로 증가(b=0.315)한다. 반면 ‘출향의지’ 를 가진 청년집단(제3요인 군집)일수록 삶의 만족도는 감소(b=-0.28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청년층의 정착과 참여적 의지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향의사를 가진 청년층은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직장인에 비해 학생, 주부, 취준생, 자영업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장 청년에 비해 만족도의 감소를 가져오는 청년은 취준생뿐이다. 취준생의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통계적 유의성은 낮지만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삶의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

대구지역 청년 중에 참여의지와 정착의지가 있는 집단은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출향의지가 있는 집단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향이 청년의 지역정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대구지역 청년의 만족도에 따른 정착 가능성

분석모델 (종속변수) 설명변수	Model I (삶의 만족도)			Model II (여가 만족도)			Model III (관계 만족도)		
	b	t	유의확률	b	t	유의확률	b	t	유의확률
상수항	5.476	20.214***	0.000	3.349	23.481	0.000	1.432	10.764***	0.000
나이(ref:19~24세)									
-25~29세	-0.282	-1.424	0.155	0.040	0.380	0.704	-0.024	-0.250	0.803
-30~34세	-0.095	-0.411	0.681	-0.205	-1.678	0.094	-0.071	-0.621	0.535
-35~39세	-0.290	-1.172	0.242	-0.090	-0.692	0.489	-0.300	-2.467*	0.014
성별(ref:남성)	0.249	1.944	0.052	-0.034	-0.511	0.609	-0.035	-0.561	0.575
결혼여부(ref:미혼)	0.244	1.072	0.284	-0.277	-2.320*	0.021	-0.059	-0.530	0.596
직업(ref:직장인)									
-자영업	-0.240	-0.979	0.328	0.110	0.853	0.394	0.124	-0.250	0.302
-전업주부	-0.267	-1.082	0.279	-0.042	-0.326	0.744	0.080	-0.621	0.509
-학생	0.106	0.496	0.620	-0.189	-1.682	0.093	-0.243	-2.467*	0.021
-취준생	-0.741	-4.054***	0.000	-0.259	-2.691**	0.007	-0.299	-3.329***	0.001
학력(ref:고졸)									
-전문대졸	0.240	1.037	0.300	0.057	0.467	0.641	-0.088	-0.773	0.440
-대졸	0.265	1.180	0.238	-0.008	-0.068	0.946	-0.191	-1.738	0.083
-대학원졸	0.460	1.500	0.134	0.263	1.630	0.103	-0.295	-1.955*	0.050
군집1 유형 (참여적 청년)	0.194	3.227***	0.001	-0.061	-1.914	0.056	-0.022	-0.752	0.452
군집2 유형 (대구 정주 의향 청년)	0.315	4.108***	0.000	0.114	2.814***	0.005	0.433	11.500***	0.000
군집3 유형 (출향 성향 청년)	-0.283	-4.492***	0.000	-0.157	-4.722***	0.000	-0.041	-1.323	0.186

Model I : F=4.855***, 자유도=24, 유의확률=0.000, R²=0.122

Model II : F=3.560***, 자유도=24, 유의확률=0.000, R²=0.092

Model III : F=11.985***, 자유도=24, 유의확률=0.000, R²=0.255

*:p<0.05, **:p<0.01, ***:p<0.001

N:811

다음으로 Model II 는 <여가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여가 만족도는 대구에 ‘정착의지’ 를 가진 청년집단에게서 긍정적(+)으로 나타난 반면에 대구로부터 ‘출향의지’ 를 가진 청년집단

에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로운 생활과 문화적 만족이 지역청년의 정착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출향의지가 있는 청년에게는 지역의 열악한 여가환경이 출향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준생의 여가만족이 부정적으로 조사되었고, 미혼자에 비해 기혼자의 여가만족이 마이너스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Model III은 <관계적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관계적 만족도는 대구 정착의지를 갖는 청년집단에만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다. 지역청년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자본이 강할수록 지역정착의향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수값이 11.500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참여적 성향을 갖는 청년집단이나 출향적 성향을 갖는 청년 집단에게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관계 만족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준비생, 대학원 졸업생은 관계적 만족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 청년이 구직의 어려움을 겪거나 학력이 높아 적합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으로 오는 괴리감 같은 상황과 결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서울에 거주하는 대구청년(직장인)의 만족도로 본 지역 귀환 가능성

서울에 거주하는 대구청년 중에 1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앞에서 분석한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3개의 잠재적 집단(요인)으로 분류하고, 이들 집단이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와 ‘직장에서의 만족’도, 그리고 ‘출향한 것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표 9>에서 보듯이, 요인분석을 통해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을 3개 발견하였고, 이 3개의 잠재적 요인으로 3개의 집단을 구성하면, 그 집단이 전체 변이의 66.7%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3개의 군집에서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제1요인 군집은 대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은 대구로의 귀환의사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군집이다. 제2요인 군집은 상당기간 서울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가지는 자들로서 ‘서울에 정착’한 청년집단이며 이들은 대구로의 귀환에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다. 제3요인 군집은 서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누리는 성공적 정착 집단으로써 대구에 살고 있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지만 대구로의 ‘귀환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 (모델 I), ‘출향 만족도’ (모델 II), ‘직장 만족도’ (모델 III)를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모델을 설정하고, 나이·성별·학력·결혼 등의 일반특성 변수와 1유형 군집, 2유형 군집, 3유형 군집이 이들 만족도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다중회귀분석). 그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 <표 11>이다.

Model I은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대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진 청년집단(제1요인 군집)은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말하자면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이 증가할수록 대구로의 귀환 의사가 없는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환의사’가 있는 청년집단(제3요인 군집)은 서울에서의 삶에 그리 큰 만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한 청년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귀환 의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계수의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낮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표 9> 설명된 총분산

요인	초기 고유값		
	전체	분산	누적(%)
1	2.150	26.876	26.876
2	1.997	24.965	51.841
3	1.185	14.809	66.650
4	0.869	10.863	77.513
5	0.737	9.218	86.731
6	0.520	6.501	93.232
7	0.354	4.425	97.657
8	0.187	2.343	100.000

주: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표 10> 회전된 요인행렬^a

잠재적 요인	요인		
	1	2	3
군집의 특성	대구에 부정적 인식으로 귀환의사가 없는 군집	서울에 정착한 귀환의사가 없는 군집	서울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환의사가 있는 군집
서울 거주기간(A2)	0.102	0.798	0.193
서울로 오게 된 이유(A4_1)	0.888	0.016	0.085
대구에서의 불편함(A4_2)	0.922	-0.073	0.036
대구로 돌아갈 의향(A6)	-0.621	-0.156	0.179
부모의 경제적 수준(C1_4)	-0.019	0.244	-0.625
서울에서의 직장 근무 기간(C2_1)	-0.012	0.831	-0.050
서울 직장의 규모(C2_3)	-0.139	0.214	0.763
총연봉 수준(C2_5)	0.082	0.470	0.732

주: 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a: 4회 반복계산에서 요인회전이 수렴

그리고 다른 일반적 특성의 변수 모두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지만, 나이가 많은 청년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Model II는 ‘출향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출향 만족도는 대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는 제1요인 군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출향하기를 잘 했다는 견해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제2요인 군집과 제3요인 군집도 출향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흥미로운 점은, 제2, 3군집은 비록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는 않지만 나이·소득수준·학력 등의 대부분의 변수들이 출향만족도와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대구에서 서울로 출향한 것이 기대한 만큼의 큰 만족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Model III의 ‘직장 만족도’에서도 이들 설명변수들이 역시 마이너스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서울로 왔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만족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표 11> 서울 출향 청년(직장인)의 만족도에 따른 귀환 가능성

설명변수	Model I (삶의 만족도)			Model II (출향 만족도)			Model III (직장 만족도)		
	b	t	유의확률	b	t	유의확률	b	t	유의확률
상수항	5.976	8.574***	0.000	3.556	17.060***	0.000	1.432	10.764***	0.000
나이(ref:19~24세)									
-25~29세	0.229	0.453	0.652	-0.070	-0.463	0.645	-0.024	-0.250	0.803
-30~34세	-0.100	-0.168	0.867	-0.155	-0.866	0.389	-0.071	-0.621	0.535
-35~39세	-1.242	-1.456	0.149	0.089	0.348	0.728	-0.300	-2.467*	0.014
성별(ref:남성)	-0.378	-1.085	0.281	-0.149	-1.430	0.156	-0.035	-0.561	0.575
결혼여부(ref:미혼)	0.426	0.874	0.385	-0.090	-0.617	0.894	-0.059	-0.530	0.596
학력(ref:고졸)									
-전문대졸	0.261	0.352	0.726	-0.092	-0.413	0.680	-0.088	-0.773	0.440
-대졸	0.214	0.434	0.666	-0.142	-0.413	0.340	-0.191	-1.738*	0.083
-대학원졸	-0.247	-0.358	0.721	-0.028	-0.134	0.894	-0.295	-1.955*	0.050
대구에 부모 거주 (ref:거주함)	-0.263	-0.632	0.529	-0.122	-0.976	0.332			
가구소득(ref:200미만)									
-200~300 미만	0.445	1.015	0.313	-0.170	-1.300	0.197			
-300~400 미만	0.733	1.379	0.172	-0.365	-2.296*	0.024	-0.088	-0.773	0.440
-400~500 미만	0.661	0.982	0.329	-0.093	-0.464	0.644	-0.191	-1.738*	0.083
-500~600 미만	0.392	0.460	0.647	-0.131	-0.516	0.608	-0.295	-1.955*	0.050
-600 이상	1.174	1.523	0.132	-0.108	-0.469	0.640			
직장지위(ref:정규직)									
-비정규직	0.206	0.389	0.698	-0.159	-1.001	0.320	-0.088	-0.773	0.440
-자영업	-0.859	-0.579	0.564	-0.106	-0.239	0.812	-0.191	-1.738*	0.083
							-0.295	-1.955*	0.050
군집1유형 (대구 부정적 청년)	0.421	2.708**	0.008	0.779	16.749***	0.000	-0.022	-0.752	0.452
군집2유형 (서울 정착 청년)	0.246	1.345	0.182	0.030	0.552	0.582	0.433	11.500***	0.000
군집3유형 (귀환의사가 있는 안정적 정착 청년)	-0.212	-1.139	0.258	0.045	0.804	0.424	-0.041	-1.323	0.186

Model I: F=1.091*, 자유도=19, 유의확률=0.376, R²=0.206

Model II: F=19.945***, 자유도=19, 유의확률=0.000, R²=0.826

Model III: F=1.485, 자유도=19, 유의확률=0.114, R²=0.261

*:p<0.05, **:p<0.01, ***:p<0.001

N:100

Model III은 ‘직장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있다. 직장 만족도는 서울에 정착하고 귀환의사가 없는 제2요인 군집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이 집단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직장에서의 만족이 높다. 그러나 대구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제1요인 집단의 직장만족도는 음(-)의 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제1요인 집단이 서울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도 있겠지만, 서울 직장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 집단은 직장에 불만족하지만 대구로 귀환할 의사도 없다. 대구에서도 만족스런 직장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흥미로운 점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제3요인 집단도 직장 만족도에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집단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서울에서의 직장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이들의 마음속에 귀환 의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직장만으로 그들의 삶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만약 대구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주어지기만 하면 귀환의 의지가 실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V. 결론: 청년의 정착과 귀환을 위하여

이번에 수행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의 지역정착에 있어서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지역에서 결혼을 하면 정착가능성은 크게 증가한다. 반면에 출향한 청년이 결혼하면 귀환 가능성이 낮아진다. 동시에 직장이 안정되면 지역정착 가능성이 증가하고 직장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을 떠날 가능성이 증가한다. 분석과정에서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변수 대부분이 제거되어 통계적 의미를 상실하였지만 직업만이 제거되지 않고 남았는데, 직업의 어려움은 정착 가능성을 저하시킨다.

주목할 것은 ‘삶의 만족도’, ‘여가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정착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의 삶의 만족감을 더 하는 여가활동 중에도 사회활동을 통한 만족도가 증가하면 정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는 지역청년의 삶의 만족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이 청년의 지역정착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청년의 주체적(참여적) 변수이다. 청년의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의미를 가질 때 청년의 정착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년정책에 참여할 의사’가 높은 청년일수록 지역 정착 가능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참여적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이 주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청년정책 발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청년의 지역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을 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지위별로 보면 (1)학생은 여가만족, 특히 사회적 관계망을 통한 여가활동이 정착 가능성을 크게 높이며, 학생 청년은 아직 주체적 참여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창업과 같은 전문적 분야 특히 창업교육과 같은 직업교육에 대해서 큰 불만을 보이고 있어 학생 청년의 지역정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청년의 지역정착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프로그램과 창업지원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직장인의 경우, 경제적 변수들은 대부분 제거되고 직장결정요인만 남았다. 대구지역의 직장 규모, 성장가능성, 특히 직장분위기, 일과 가정의 병행과 같은 요소들은 직장인 청년의 정착요인을 크게 감소시킨다. 대구지역의 직장근무 여건이 열악함을 의미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직장인들은 문화적 요인이 지역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여가만족도가 직장인의 정착 가능성을 낮추고 있는데, 이는 지역청년의 문화적 불만을 의미한다. 또한 참여적 변수들 중에서 청년의 주체적 활동을 지원하는 대구청년센터의 역할이 지역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역청년이 청년정책 의제 발굴 프로그램에 1단위 참여할수록 지역정착 가능성이 9.96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청년정책 참여, 청년정책 제시, 혁신활동지원 등의 실제적인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정착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정책제안이 반영되지 않아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취준생의 경우, 진로취업교육이 취업준비 청년의 정착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대구지역기업에 취업의사를 가진 청년일수록 지역정착 가능성을 5.76배 크게 제

고시킨다.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지역기업과 지역청년 취준생과의 미스매치 해결이 지역정책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서울출향 청년의 귀환 가능성은 일단 결혼을 하면 낮아진다. 반면에 나이가 들거나 학력이 높아질수록 귀환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대구로의 귀환에 통계적 유의성을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 출향을 만족하는 청년일수록 귀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연봉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귀환의 결정요인이 아니며, 오히려 관계적 변수 중에 대구에 부모가 살고 있다는 점이 귀환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할수록 대구로의 귀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반면에 서울에서의 삶이 어려울수록 대구로의 귀환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 서울에서의 어려움이 지역청년을 지역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귀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위 성공해서 돌아가려는 ‘금의 환향’의 경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년을 성향별로 구분하여 정착과 귀환의 가능성을 분석해보았다. 정착과 귀환이 만족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지역거주 청년 중에 참여적 성향을 가진 집단, 정착 의지를 가진 집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 정착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면 출향의사를 가진 집단은 지역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낮아 정착 가능성을 낮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지역거주 청년 중에 정착의지를 가진 청년집단은 여가 만족도가 높아 정착 가능성이 높지만 출향의지를 가진 청년집단은 여가 만족도가 낮아져서 정착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여유로운 생활과 여가 만족도가 지역청년의 정착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지역에 정주할 의향을 가진 청년 집단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계자본이 증가할수록 지역정착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사회활동, 참여활동 등의 관계망 확충을 위한 지역 배려의 중요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서울로 출향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대구청년 중에 대구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이 있는 청년 집단은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도 높고, 출향 만족도도 높아서 귀환가능성이 낮게 나타난다.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는 일이 귀환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대구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학생시절부터 이해하고 탐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분석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대구로의 귀환의지가 있는 청년집단은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직장 만족도 역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비록 서울에서 경제적 성공을 한 청년이라 할지라도 대구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대구로 귀환할 의사가 있는 청년집단에게는 잠재적 귀환 가능성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런 분석 결과는 대구지역이 어떤 지역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지역 귀환의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실태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청년의 정착 가능성과 출향청년의 귀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과정에서 유출청년의 표본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과 기존의 문화·참여와 관련된 설문 문항을 문화적 요인과 주체적 요인의 설문 문항으로 해석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자의성이 없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해 온 연구 경향을 극복하고 문화적·관계적·주체적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책화기 위해서는 보다 본격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권상철(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제주지역 유출-유입인구의 속성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6권 제2호, pp. 59-73.
- [2] 김기승·정민수(2013), 「청년층 인재유출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과제:부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31권 제2호, pp. 103-130.
- [3] 김안국(2006), 「이공계 대졸청년층의 직장이동과 전공직종일치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제29권 제1호, pp. 153-184.
- [4] 김준영(2006), 「대학졸업생의 지역간 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제4회 논문집), 중앙고용정보원.
- [5] 류장수(2005), 「지방대학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분석:수도권대학 졸업생과의 비교」,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2호, pp. 1-27.
- [6] 류장수(2015), 「지역인재 유출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 『지역사회연구』, 제23권 제1호, pp. 1-25.
- [7] 박영구(2002),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 『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1호, pp. 110-124.
- [8] 박우식·남병탁·엄창욱(2010), 『대구경북지역 인재유출입 수치분석』, 대구경북연구원.
- [9] 박우식·박상우·엄창욱(2010), 「지역인재 유출에 의한 경제력 유출 분석: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4호, pp. 2247-2274.
- [10] 박우식·엄창욱(2014),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연구』, 제22권 제3호, pp. 111-130.
- [11] 어수봉(1992), 『한국의 노동이동』, 한국노동연구원.
- [12] 이병희·정재호(2005), 『노동이동과 인력개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5-08.
- [13] 이상호(2010), 「지역간 이동의 결정요인 및 임금효과」, 『지역연구』, 제26권 제1호, pp.
- [14] 이찬영·조세형·류재준(2016), 「광주지역 청년층 인재유출 원인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48권 제1호, pp. 95-120.
- [15] 이찬영·이홍우(2016), 「청년층의 지역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pp. 143-169.
- [16] 이효수·남병탁(2008), 「대구경북지역의 일자리 변동 및 유출입 분석」, 『경제연구』, 제26권 제2호, pp. 167-192.
- [17] 임정택(1998), 「한국의 지역내 두뇌유출에 관한 연구」, 『경제학연구』, 제34집.
- [18] 전병휴(2000), 『지역노동시장연구Ⅱ』, 한국노동연구원.
- [19] 정인수(2004), 「지역간 노동이동 연구」,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1호, pp. 57-87.
- [20] 최영아(2005), 『한국의 고용구조』, 중앙고용정보원.
- [21] 홍성우(2016), 「광주지역 대졸인력 유출현황과 요인분석」, 『지역개발연구』, 제48권 제1호, pp. 1-23.
- [22] 홍성우·이건철(1998), 『지역노동시장연구Ⅲ』, 한국노동연구원.
- [23] 樋口美雄外(2016), 「日本における地域の人口減少と地方創生」, 『超高齢・人口減少社会のイノベーション:超成熟社会発展の経済学Ⅲ』, 樋口美雄・駒村康平・齋藤潤編著, 慶應義塾大学出版会.
- [24] 石黒格・李永俊・杉浦弘晃・山田恵子(2012), 『東京に出る若者たち』 ミネルバ. (번역본) 『지역청년, 왜

- 떠나는가』, 엄창옥 외, 박영사, 2014.
- [25] Christopher, A. P.(2000), *Human Capital and Growth: a Synthesis Report*, OECD, 168.
- [26] Foulkes M, N. Bruce(2000), “Migration Propensities, Patterns and the Role of HumanCapital: comparing Mexican, Cuba, Puerto Rican Interstate Migration, 1985-1990” , *Professional Geographer*, 52.
- [27] Harris, John R. and Michael Todaro P.,(1970), “Migration, Unemployment and Development: A Two-Sector Analysis” ,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0, p.126-141.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Settlement and Return to the Local Youth

Um, Chang Ok, Roh, Kwang Uk, Park, Sang Woo

Abstract

Inter-local movement of the youth is working as a critical factor in the local economic activity and potential growth power in Korea. In particular, recently we are paying attention to the outflow of local youth generation from local area to the metropolitan area a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collapse of the local area'. Therefore, research performance on the youth outflow toward the metropolitan area have been accumulated considerably in Korea. However, these studies fail to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cent youth culture shift and job selection criterion of young people, because of mainly focusing on economic factor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outflow of local youth and the possibility of return to the their provinces through a survey that included variables such as social factors, relational factors, and subjective factor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This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relational and subjective factors are also very important as factors of youth's outflow and return to rural areas even though economic factors are very important. In particular, 'the satisfaction with life'(so called work-life balance) was analyzed as a critical factor in the settlement and return of young generation, which is more affected by social and subjective factors than by economic factors. According to this analysis, We could understand the implications that policies for settlement and return of the youth to the local area should focus not only on economic factors but also on innovation of local culture,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 and the subjective-participation of young people.

Keywords : Brain Drain, Local youth labour market, Settlement of local youth, Return of local youth, the subjective-participation of young, the formation of social capital